

문학

베스트셀러 권좌에 여성작가들 각축

상반기 문학시장의 흐름

최재봉 · 한겨레신문 문화부 기자

올 상반기 문학 독서시장은 '잘 나가는' 여성 작가들의 각축장과도 같았다. 박완서·양귀자·신경숙·공지영·은희경 등의 소설이 주요 베스트셀러 목록의 상위권을 점했다. 이런 현상은 90년대 문학의 '여성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박완서 소설집 《너무도 쓸쓸한 당신》은 한국문학에서 노인의 형상화를 한 차원 높은 문제작이었다. 한국문학에서 노인을 그릴 때, 거기에는 무언가 정형화한 하나의 틀이 있었다. 그러나, 그 자신 노인인 박완서의 소설은 그 틀이 그야말로 '소설'에 지나지 않음을 통렬히 보여줬다. 노인에게도 나름의 욕망과 몸부림, 성취와 좌절이 있다는 것을 작가는 냉정하고도 짙진하게 보여줬다.

문학성, 통속, 상업성

양귀자의 《모순》이 확인시킨 것은 문학 대중화에 대한 작가의 신념, 그리고 그 신념을 작품으로 치환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뿐이었다. 이 소설 주인공 안진진이 택한 '타산'은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의 공격적 여성주의와도, 《천년의 사랑》의 운명론적, 환상적 사랑관과도 상치되는 것이었다. 대중작가 양귀자의 이들 삼부작이 공통적으로 지닌 것이라고는 소구 대상의 취향과 감각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겨냥했다는 사실뿐이다.

은희경의 경우, 장편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와 중단편집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가 나란히 베스트셀러의 상위에 오름으로써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임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그의 소설은 《새의 선물》과 《타인에게 말걸기》의 참신성과 패기를 잃고 타성에 빠지거나 오히려 퇴보한 느낌을 준다. 소설집의 몇몇 작품은 심지어 그가 지난 소설에서 소리 높여 배척했던 통속적 감상주의에 투항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공지영의 《봉숭아 언니》가 소박한 휴머니즘에 입각한 소품이었던 반면, 신경숙의 《기차는 7시에 떠나네》는 그로서는 드물게 80년대를 다룬 작품으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신경숙이 그린 80년대는 개연성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지닌 것이었다. 게다가 그의 최근 소설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신비주의 경향, 파트릭 모디아노의 《어두운 상점

상반기 문학시장은 '잘 나가는' 여성작가들의 각축장과도 같았다. 박완서·양귀자·신경숙·공지영·은희경 등 여성작가들이 경쟁적으로 독자를 끌어모은 반면, 박상우의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과 김진명의 대중소설을 제하고는 남성작가의 소설은 대체로 외면당했다.

들의 거리》를 연상시키는 소설의 모티브 등은 이 작품의 소설적 완성도를 회의하게 만드는 요소였다.

어쨌든 여성작가들이 경쟁적으로 독자를 끌어모은 반면, 박상우의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과 김진명의 대중소설을 제하고는 남성 작가의 소설은 대체로 독자로부터 외면당했다. 웬일인지 남성 작가의 작품으로 독자의 관심을 끌 만한 것이 많지 않기도 했다.

시대와 더불어 성숙한 황지우 시집 인기

중견 작가 현기영이 모처럼 내놓은 장편 《지상에 손가락 하나》는 작가 자신으로 보나 한국문학 전체를 보아서나 의미 있는 작품임에 틀림이 없었으나, 일반 독자들의 입맛을 당기지는 못한 듯했다.

인문 · 교양

시장은 바닥, 주제는 풍성

새로운 정치이념 모색, 신자유주의 비판

올해 상반기 인문사회 시장은 '외빈내화'의 양상이었다. 경기가 회복됐다는 풍문만 무성할 뿐 인문교양서의 수요는 바닥 수준을 면치 못했다. 상반기 베스트셀러 50위권 가운데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바다출판사)·《김병종의 화첩기행》(효형출판)·《우리 역사의 수수께끼》(김영사) 등이 겨우



윤대녕이 4년 만에 묶어낸 중단편집 《많은 별들이 한곳으로 흘러갔다》는 상반기가 거의 끝나갈 즈음 출판돼 독자들의 반응을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동료 여성작가들에 비해 상업성은 떨어진다고 봐야 할 터이다 (사실, 윤대녕과 신경숙은 90년대의 대표작가로서 흔히 같은 맥락에서 논의되고는 하지만, 신경숙이 막강한 상업성을 확보한 반면, 윤대녕은 소수의 열광적인 독자를 거느렸다는 점에서 둘 사이의 차이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순전히 문학적 차원에서 말을 덧붙이자면, 신경숙의 상업성은 그의 문학에 해가 될 수 있는 반면, 윤대녕의 비상업성은 오히려 그의 문학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소설이 아닌 시 쪽이기는 하지만, 지난 연말 출간된 황지우의 시집 《어느 날 나는 흐린 주점에 앉아 있을 거다》가 베스트셀러 종합 순위의 상위에 오른 것은 특기할 만하

윗줄 왼쪽부터 박완서·신경숙·은희경·윤대녕



다. 황지우의 시를 두고 자의식 과잉이라거나 불필요한 절망의 포즈를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80년대를 대표했던 젊은 시인이 시대와 더불어 성숙해 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김기택의 《사무원》, 이문재의 《마음의 오지》, 최성호의 《그로테스크》 등도 좋은 시집이었으나, 독자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이었다. ❖

눈에 띈다. 지난해 말 출간된 《제3의 길》(생각의나무)만이 12위에 올라 체면을 차렸다.

《제3의 길》 노선으로 기든스 봄

수치상으론 빈곤했지만 내용은 알찼다.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이념이 모색되기 시작했고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

문제도 본격 조명돼 혼란기의 시대상을 반영했다. 우리사회의 성역을 파괴한 소장 지식인들의 도발적 발언도 지적 충격을 몰고 왔다. 역사교양서가 인기품목으로 자리잡았고 증세사가 부쩍 관심을 끌었다. 일본 석학들의 작품도 소개돼 일본인에 대한 시각을 교정했다.

< '99 상반기 베스트셀러 전국집계 >

순위	제목	저자	출판사	분류
1	맞아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 한국인 비판	이케하라 마모루	중앙M&B	비소설
2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리처드 칼슨	창작시대사	비소설
3	기차는 7시에 떠나네	신경숙	문학과지성사	소설
4	오체불만족	오토다케 히로타다	창해	비소설
5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	은희경	창작과비평사	소설
6	모순	양귀자	살림	소설
7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류시화	열림원	시
8	너무도 쓸쓸한 당신	박완서	창작과비평사	소설
9	내마음의 옥탑방 외(1999년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박상우 외	문학사상사	소설
10	한반도	김진명	해냄	소설
11	사랑하지 않아야 할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정하	자음과모음	비소설
12	제3의 길	앤서니 기든스	생각의나무	사회과학
13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은희경	문학동네	소설
14	어느날 나는 흐린 주점에 앉아 있을 거다	황지우	문학과지성사	시
15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수잔 폴리스	오늘의책	시
16	일식	히라노 게이치로	문학동네	소설
17	광수생각	박광수	소담	비소설
18	낮선 곳에서의 아침	구분형	생각의나무	사회과학
19	판지일보	김어준	자작나무	비소설
20	봉순이 언니	공지영	푸른숲	소설
21	자신있게 살아라	앤드류 매튜스	고도컨설팅그룹출판부	비소설
22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용혜원	양피지	시
23	산에는 꽃이 피네	법정	동쪽나라	비소설
24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김경일	바다	인문과학
25	빌게이츠 @생각의 속도	빌 게이츠	청림	사회과학
26	증권투자 알고 합시다	매일경제증권부	매일경제신문	사회과학
27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미치 앨봄	세종서적	비소설
28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	류시화	열림원	시
29	키친	요시모토 바나나	민음사	소설
30	마음 가는대로 해라	앤드류 매튜스	생각의나무	비소설

* 한국서련, 대한출판 공동체공

올해 초 지식인사회를 뜨겁게 달군 것은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 노선 서유럽 중도좌파정권의 득세와 대안적 정치를 모색하는 대중의 지적 욕구가 맞아떨어지면서 '기든스붐'이 조성됐다. 《기든스와의 대화》(2세기북스)·《성찰적 근대화》(한울) 등이 잇달아 출간되면서 이를 증폭시켰고, 보비오의 《제3의 길은 가능한가》(새물결)와 홉스봄 외의 《제3의 길은 없다》(당대)는 이런 과잉열기에 대한 '소방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IMF 이후 우리사회의 화두는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 및 실업이었다. 전세계적 차원에서 이를 조망한 분석서도 쏟아졌다. 《어두운 승리》(삼인)·《신자유주의와 세계의 노동자》(문화과학사)·《작은 풍요》(이후) 등은 신자유주의의 야만성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노동을 확산시키고 결국 작업장에 모든 고통을 전가한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타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식인들의 발언수위도 높아졌다. 《인물과 사상》(개마고원)을 중심으로 극우언론의 공격수로 나선 강준만 교수, 《민족주의는 반역이다》(소나무)로 봉건적 민족주의 담론을 정조준한 임지현 교수, 유교주의 고풍이의 청소부를 자처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김경일 교수 등이 색깔 있는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풍자와 독설로 텍스트를 해체해 조롱한 진중권, 문단의 가부장적 봉건

주의에 메스를 가한 김정란 교수 등도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활약했다.

탈이념의 시대조류를 반성하며 새로운 좌파이념의 좌표를 찾는 작업도 활발했다. 특히 노동해방에 중점을 뒀던 구좌파의 자리를 물려받아 일상권력까지 문제삼은 신좌파의 이념과 과거 학생운동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담은 책들이 우리 시대의 고민을 대변했다. 조지 카치아파카스의 《신좌파의 상상력》(이후), 윌러스틴의 《이행의 시대》·《유토피스틱스》(창작과비평사), 김원의 《잊혀진 것들에 대한 기억》(이후) 등이 주목할 만한 성과물이었다.

일본지성의 문제작 본격 소개

대중성과 전문성을 결합한 역사교양서가 인문시장에서 상품가치가 높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우리역사의 수수께끼》·《역사의 길목에 선 31인의 선택》(푸른역사)·《황릉의 비밀》(일빛)·《난징 대학살》(글리오) 등이 독자에게 사랑받았다. 서양 중세사가 고급 독자들에게 주목받았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아날학파의 대가급 중세사가인 조르주 뒤비와 자크 르 고프의 책이 집중 소개돼 중세의 르네상스를 예감케 했다.

출판에서 일본은 무진장의 탐구주제를 내장하고 있는 존재다. 일본에 대한 극단적 우월주의나 근거없는 열등의식을 극복하려는 시도의 하나로 일본의 일급 지식인의 문제

작도 여러 소개됐다. 마루야마 마사오의 《충성과 반역》(나남출판), 가라타니 고진의 《탐구》(새물결), 후지타 쇼조의 《전체주의의 시대경험》(창작과비평사), 이마무라 히토시의 《근대성의 탐구》(민음사) 등은 일본 지성의 고민과 지적 탐구의 여정을 보여줬다. 일본의 팽창주의·국가주의의 실체를 파헤친 《일본주의자의 꿈》(푸른역사)·《국가주의를 넘어서》(삼인)는 일본의 이중성을 객관적으로 조명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생명공학과 진화론

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세기말 유전자 조작의 위험성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분석한 작품들이 본격 소개됐다. 한편 외국문학에서는 일본소설이 전성기를 누렸다. 히라노 게이치로의 《일식》(문학동네)이 베스트셀러 수위에 올랐고, 무라카미 류, 무라카미 하루키, 요시모토 바나나의 작품이 경쟁적으로 출판됐다. 특히 아쿠타가와상 수상작인 《게르마늄의 밤》(씨앤씨미디어)의 음란성을 둘러싸고 한일간의 문화적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박천홍 기자

가치론의 역사적 조명

W.H. 베르크마이스터 지음/최병환 옮김/640면/26,000원

윤리학의 분과 학문인 가치론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객관적으로 서술했다. 브렌타노·마이농·에렌웍스·크라이비히 등의 가치론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오늘날 인간이 의지해야 할 '가치'를 해석하고 그 역사적 토대를 검토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유학—전통과 현대화

蔡方鹿 지음/김봉건 옮김/320면/10,000원

중국 유학의 어제와 오늘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유학의 성격과 역사, 그리고 유학과 정치·철학·교육·문학·종교 등과의 관계를 밝히고, 아울러 유학이 한국과 일본에 끼친 영향을 다루었다. 나아가 오늘날 유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모색하고 있다.

중용철학

楊祖漢 지음/황갑연 옮김/352면/11,000원

유학의 주요 경전 《중용》의 철학적 의미를 밝힌 책. 중용 철학을 우주론이나 천도론 중심의 철학으로 보지 않고 공맹 심성론의 발전으로 이해했다. 중용 철학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중용》의 자구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분석했으므로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헤겔

G. 비더만 지음/강대석 옮김/224면/7,000원

헤겔의 사상을 그의 생애 및 사회적·역사적 배경과 연관시켜 서술한 쉽고 재미있는 헤겔 철학 입문서. 방대하고 난해한 헤겔의 사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진보적인 사상가로서의 헤겔의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영업부 924-6161 편집부 924-6165 팩시밀리 922-4993 천리안 phil6161